

역사드라마의 장르사적 변화과정*

주창윤**

<차례>

1. 문제의 제기
2. 역사드라마 장르: 쟁점과 분류
3. 분석방법
4. 역사드라마의 장르사적 구분
5. 역사드라마의 장르사적 변화
6. 결론

<국문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1964년부터 현재(2005년)까지 역사드라마의 장르사적 변화과정을 탐구하는 데 있다. 이 연구는 역사드라마 장르를 역사서술방식에 따라서 다섯 가지 하위 장르—기록적 서술, 개인적 서술, 상상적 서술, 전형적 서술, 허구적 서술—로 구분하고, 내용과 형식의 변화과정을 기준으로 i) 옛 이야기와 교양으로서 역사드라마 시기(1964~1972), ii) 민족 이데올로기 생산으로서 역사드라마 시기(1973~1980), iii) 백락 중심의 정사(正史) 드라마 시기(1981~1994), iv) 대형화와 대중성 획득의 역사드라마 시기(1995~현재)로 분류했다.

옛 이야기와 교양으로서 역사드라마 시기는 라디오 드라마의 연속선 상에서 시청자에게 역사 이야기를 들려주는 방식으로 제작되었다. 대체로 허구적 역사서술방식과 극적 요소가 강한 인물 중심의 역사드라마가 방영되었다. 민족 이데올로기 생산으로서 역사드라마 시기는 국민교육의 장으로서 역사와 민족을 강조한 박정희 정부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생산한 시기이다. 1980년대 초반 이후에는 인물중심적 역사서술에서 벗어나서 정사 중심의 개인적 역사서술방식이 주를 이루었다. 따라서 역사적 백락과 권력관계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었다. 1995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특징적인 현상은 상상적 역사서술방식의 역사드라마가 대중성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상상적 역사서술은 멜로드라마 구조, 역사공간의 재현, 스펙터클의 강화, 사적 영역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주제어: 텔레비전 드라마, 역사드라마, 장르사, 상상적 역사드라마

* 이 논문은 2006년 서울여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교내 연구비 지원에 의해서 수행되었음.

** 서울여자대학교 언론영상학부 교수

1. 문제의 제기

역사, 역사학 그리고 역사드라마. 이 세 가지는 사실(史實), 사실에 대한 과학적 설명, 그리고 그 설명에 대한 ‘상상적 해석’의 관계일 것이다. 우리가 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한 역사기록을 통해서다. 역사학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가변의 두 축을 날줄과 씨줄로 하여 인간과 조건을 이해하는 학문이라면, 역사드라마는 사실과 상상력을 매개로 만들어지는 허구물이다. 역사드라마는 역사학이 대상으로 삼는 기록과 편린들을 가지고 작가적 상상력을 첨가한다. 상상력은 과학이 아니라 작가의 역사해석 경험으로부터 나온다.

역사드라마는 역사와 특별히 연계된 드라마로 역사성과 상상력이라는 이중성을 지닌다. 따라서 역사드라마에서 역사적 사실인가 허구인가 하는 이분법적 논란은 별다른 함의를 제공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역사드라마는 특성상 경험적 서사와 허구적 서사가 융합되어 있고, 역사성과 허구성 사이에서 위치하기 때문이다. 역사성을 중시하는가 혹은 허구성을 중시하는가에 따라서 역사드라마의 성격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1964년 낙랑 공주와 호동 왕자의 전설을 극화한 <국토만리>(김재형 연출·박신민 극본)가 방영된 이후 역사드라마는 지속적으로 변화되어 왔다. 1960년대 초기 역사드라마는 옛 이야기로서 인물사나 고전소설 등을 극화했다. 1970년대 중반에는 민족과 국난극복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표현하는 역사드라마가 지배했다. 1980년대 초반에는 정사(正史)를 바탕으로 제작된 역사드라마가 부상하기도 했다.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역사적 인물에 대한 작가적 상상력, 멜로드라마 장치, 스펙터클의 요소를 결합한 새로운 역사드라마가 인기를 얻고 있다.

역사드라마가 한국 사회와 텔레비전 환경 속에서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를 밝히는 작업은 역사드라마를 둘러싼 다양한 시대정신의 변화와

장르사적 발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하나의 장르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 맥락, 미디어 산업, 수용자 관계 속에서 변화하고 있다면, 새로운 장르의 등장과 변화과정은 드라마를 둘러싼 다양한 관계를 반영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한국 역사드라마가 1964년부터 2005년 5월까지 약 40년 동안 어떻게 장르사적으로 변화되어 왔는가를 밝히고자 한다.

2. 역사 드라마 장르: 쟁점과 분류

1) 역사드라마 장르의 쟁점

하나의 장르를 정의하기란 쉽지 않다. “장르는 텍스트의 코드화된 형식일 뿐만 아니라, 산업, 텍스트, 수용자 사이에 순환하는 기대와 관습의 체계들이기 때문이다.”¹⁾ 산업적 시각은 장르를 생산(제작방식의 변화)과 시장(수용자의 관심도)의 입장에서 바라본다. 성공한 유형의 작품을 반복적으로 제작함으로써 위험을 최소화하거나, 시장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장르를 정의한다. 반면 텍스트 수준에서 장르 정의는 규칙과 관습에 주목한다. 그러나 문제는 산업적 차원과 텍스트의 차원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는 데 있다. 더욱이 하나의 장르는 계속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명확히 정의하기 어렵다. 그동안 역사드라마 장르 정의와 관련된 쟁점을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역사드라마는 특정 과거 시간과 배경을 중심으로 정의된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과거 시간을 다루어야 역사드라마 범주에 포함시킬 것인지 논란이 제기된다. 방송종사자들은 통상적으로 역사드라마는 상고시대부터 일제 강점기까지를 시대배경으로 설정하는 드라마, 시대극은 해방

1) Neale, S., *Genre*, London: British Film Institute, p.19.

전후부터 1950년대 말까지를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 현대극은 1960년대 이후 시대배경을 가진 드라마로 정의한다.²⁾ 문학에서 역사소설이라고 할 때 대체적으로 두 세대 40~60년 정도의 과거사를 다룬 소설을 의미한다.³⁾ 역사영화의 경우, 2차 세계대전 전후를 기준으로 설정하기도 하지만,⁴⁾ 다른 역사영화 연구자들은 자의적인 시기구분을 설정하지 않는다.⁵⁾

둘째, 역사적 사실과 인물의 활용과 관련해서 어떻게 역사드라마를 정의할 것인가도 쟁점이다. 실제 역사적 인물과 사건을 중심으로 설정되면 역사드라마로 정의하는데 이견이 없다. 그러나 쟁점은 허구적 요소의 개입 정도다. 역사적 배경과 사건을 설정하지만, 등장인물은 모두 허구인 경우(<토지>(KBS, SBS), <장길산>(SBS) 등); 역사적 배경 자체를 허구적 역사로 설정하면서 등장인물도 허구인 경우(<대망>(SBS)); 불분명한 역사적 인물과 배경을 설정하는 경우(<조선여형사 茶母>(MBC)) 모두 역사드라마의 범주에 포함시킬 것인지 아닌지도 논란이다.

셋째, 드라마가 역사적 사실에 기초하지 않지만 과거 전설, 설화, 고전소설 등 완전한 허구물을 드라마로 제작하는 경우 역사드라마로 볼 수 있는지도 쟁점이다. 최초 역사드라마로 인정되는 <국토만리>(KBS, 1964) <춘향전>, <허생전> 등과 같은 고전소설과 전설을 극화한 <전설의 고향> 등을 역사드라마 장르에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다.

넷째, 1960년대 중반에서 1970년대 초반까지 주로 일일드라마로 제작된

2) 이병훈, 「TV史劇의 변천과 특성에 관한 연구」, 한양대 석사학위논문, 1996; 오명환, 『텔레비전 드라마의 사회학』, 서울: 나남출판, 1994.

3) 공임순, 『우리 역사소설은 이론과 논쟁이 필요하다』, 서울: 책세상, 2000.

4) Higson, A., *English Heritage Cinema: Costume Drama Since 1980*, Oxford an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5) Grindon, L., *Shadows on the Past: Studies in the Historical Film*, Oxford and New York: Temple University Press, 1994; Rosenstone, R. A., *Visions of the Past: Challenge of Film to our Idea of History*, Cambridge, Massachusetts and London: Harvard University Press, 1995; Rosenstone, R. A., *Revisioning History*, 김지혜 옮김, 『역사-영화 새로운 과거의 만남』, 소나무, 2002.

것으로 조선시대 유교문화의 영향 아래서 여인들의 고난과 설움을 다룬 드라마들이 적지 않다. 이들 드라마들은 멜로드라마의 관습을 주로 따르는데 지배 계층인 양반 가정 내에서 자식들의 사랑, 시어머니에게 구박 받는 며느리의 애환, 서민이나 천민들의 슬픔과 사랑, 신분 차이로 인한 사랑 등을 다룬다. 이 경우 모호한 역사적 배경만이 존재할 뿐 내용과 형식은 멜로드라마 관습을 따른다.

기존 역사드라마 정의는 포괄적으로 쟁점이 되는 위의 네 가지 사례의 드라마를 모두 역사드라마로 정의해왔다. 이것은 역사적 시간과 공간을 기준으로 역사드라마를 규정한 것이다. 이때 역사적 시간은 관습적으로 두 세대 이전 과거를 다루는 것으로 한정해왔다.

그러나 역사드라마를 정의할 때 두 가지 수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드라마적 요소들—인물설정, 에피소드 중심적 전개, 플롯 구성—의 활용과 또 다른 하나는 역사적 배경과 역사공간의 재현이다. 기존 역사드라마 정의는 드라마적 요소보다는 역사적 배경(시간)만을 지나치게 강조했다. 여기서는 역사드라마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자 한다.

첫째, 1960년대 중반에서 1970대 초반까지 일일드라마 형식으로 모호한 조선 시대를 배경으로 가족갈등과 사랑을 다룬 드라마는 시대적 배경은 과거지만 드라마적 요소로 멜로드라마의 관습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역사드라마의 범주에서 제외한다.⁶⁾ 둘째, 역사드라마는 두 세대 이전까지를 과거사로 소재로 한 드라마로 정의한다. 따라서 1945년 해방 이전의 과거사를 다룬 것으로 구분점을 삼았다. 다만 두 세대 이전의 과거사를 다루었다고 해도 개인적 요소에 치우친 드라마들은 역사드라마로 정의하지 않는다. 일제 강점기부터 현대사까지 다룬 드라마는 역사드라마 범주에서 제외시켰다. 셋째, 역사적 사실과 인물의 활용과 관련해서 역사적 배경과 사건이 분명한 경우, 허구적 인물과 허구적 역사를 설정

6) 대표적인 예로써 <갑이>(TBC, 1965), <구슬아씨>(KBS, 1967), <진사의 딸>(KBS, 1972) 등의 드라마는 멜로드라마로 규정해서 역사드라마 범주에서 제외한다.

하는 경우, 그리고 불분명한 역사적 배경과 인물을 설정하는 사례는 역사드라마로 정의했다. 왜냐하면 허구적 인물이 등장한다고 해도 역사적 사실과 사건이 분명할 경우 역사적 사건(공적 맥락)과 개인적 요소(사적(私的) 요소) 사이 인과적 관계가 설정되는 경우가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역사적 시간이 불분명하고 허구적 인물이 등장한다고 해도 사적 관계와 더불어 당시 역사공간의 재현과 공적 의례, 과거 사회적 맥락이 드라마에 포함되는 경우 역사드라마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조선 여형사 茶母>나 <대망>도 역사드라마 범주에 포함된다. 넷째, 전설, 고전소설, 설화 등을 다룬 드라마의 경우도 과거 시대적 정서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허구적이라고 해도 역사드라마의 범주로 규정한다.

2) 역사드라마의 하위 장르

역사드라마의 하위 장르는 역사서술의 방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다섯 가지—기록적 역사서술, 개연적 역사서술, 상상적 역사서술, 전형적 역사서술, 허구적 역사서술—로 분류했다(<표 1> 참고).⁷⁾

7) 역사적 허구물과 관련된 장르유형 구분은 적지 않은 논란을 지닌다. 대체로 역사성과 허구성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구분하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역사소설의 경우, 이재선(1999)은 ‘역사’지향적 역사소설과 ‘소설’지향적 역사소설로 구분하며, 김윤식(1986)은 이념형, 의식형, 중간형, 야담형 역사소설로 분류한다. 공임순(2000)은 역사서사와 환상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기록적, 가장적, 창안적, 환상적 역사소설로 분류한다. 역사드라마의 경우, 신봉승(1984)은 세 가지로 구분한다. 첫째, 시대, 사건, 인물을 역사적 사실에 바탕을 두고 있는 정사극, 둘째, 사건과 인물을 모두 허구로 설정하는 창작 역사극, 셋째, 시대와 사건은 정사에서 취하지만 인물만을 허구로 하거나 또는 허구의 인물과 실제 인물을 함께 그려가는 야사극(野史劇)이다. 이병훈(1996)은 i) 고전야담 및 설화극, ii) 왕가나 세도가 중심의 야사, iii) 서민 애환사, iv) 멜로성 여인수난사, v) 수사 활극, vi) 실제사건이나 시대배경의 정사극, vii) 실존인물 중심의 정사극으로 구분한다. 반면, 역사영화와 관련해 로젠스톤(Rosenstone, 1995, pp.50~54)은 세 가지로 구분한다. 드라마로서 역사영화(history as drama), 다큐멘터리로서 역사영화(history as documentary),

기록적 역사드라마는 정사를 바탕으로 제작된 드라마다. 기록적 서술은 작가가 역사가와 동일한 사건과 인물을 공유한다. 기록적 서술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역사성과 개연성 사이의 갈등은 크지 않으며, 역사적 사건의 외적 현실을 재진술한다는 점에서 외적 개연성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개연적 역사드라마는 실제 공적 기록, 인물, 사건이 이야기의 중핵을 형성하지만, ‘기록되지 않는 부분들’(dark area)은 작가의 역사적 상상력으로 메운다. 역사드라마는 역사에 대한 보완적 지위를 갖는 것으로 역사적 자료를 일차적으로 활용하지만 부족한 역사적 재료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데 작가 상상력이 개입할 수밖에 없다. 맥락적(extrapersonal) 요소, 역사적 공간, 당시 집단의 모습, 공적 의례 등이 개연적 역사드라마의 범위를 설정하는데 기여한다.

<표 1> 역사드라마의 하위분류

하위유형	기록적 서술	개연적 서술	상상적 서술	전형적 서술	허구적 서술
역사자료	정사 중심 활용	정사/야사의 활용	야사의 활용	민중사의 활용	전설, 고전소설 등
작가의 역할	역사에 대한 설명자	역사에 대한 해석자	배경설명자	역사적 진실의 전달자	이야기 전달자
역사적 해석	외적 개연성	내적 개연성	상상적 해석	총체적 해석	규범적 해석
서술자 (narrator)의 역할	매우 중요	중요	별로 중요하지 않음	거의 없음	어느 정도 /없음
대표적 드라마	개국, 독립문, 조선왕조 500년	용의 눈물, 태조왕건, 제국의 아침	여인천하, 허준, 대장금	토지, 천둥소리	전설의 고향, 춘향전

실험으로서 역사영화(history as experiment). 드라마로서 역사영화는 실제인물과 사건을 다루거나 인물과 플롯은 허구지만 역사적 배경이 의미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화이며, 다큐멘터리로서 영화는 역사적 증인이나 해설자를 통해서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제작되는 영화이고, 실험으로서 역사영화는 드라마로서 역사영화와 다큐멘터리로서 역사영화 사이에 위치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것으로 에이젠슈치인의 <Oktober>, <Battleship Potemkin> 등을 들고 있다.

상상적 역사드라마는 역사적 재료에 기초하지만 보다 작가의 허구적 상상력이 지배하는 경우다. 역사드라마에 등장하는 인물의 경우, 정사에는 간략하게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작가의 허구적 상상력이 이야기 전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예를 들어, 허준이나 정난정에 대한 정사는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역사적 맥락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바탕으로 작가가 역사드라마를 구성할 수밖에 없다. 주요 인물과 몇 개의 중요한 사건을 제외하면, 대부분 사건들은 전적으로 작가의 상상력에 의존한다.

전형적 역사드라마는 역사소설의 차용으로 허구적 인물로서 중도적 인물을 설정해서 역사적 진실을 총체적으로 다룬다. 주인공은 세도가나 왕 또는 권력자로서 영웅이 아니라 시대의식을 갖고 있는 일상적 인물이다. 전형적 인물설정을 통해서 총체적으로 시대의식을 형성화하는 드라마로 <토지>(KBS, 1979~1980; 1988~1989, SBS, 2004~2005), <객주>(KBS, 1983), <천둥소리>(KBS, 2000~2001) 등을 들 수 있다.

허구적 역사드라마는 이야기 전개에서 고전소설, 전설, 설화, 민담 등을 활용한 드라마이다. 허구적 역사드라마는 역사적 사실과 별로 관련이 없고, 작가는 과거 이야기의 전달자로서 인과응보와 같은 규범적 가치를 전달한다.

3. 분석방법

1) 분석대상

분석대상은 1964년부터 2005년 5월까지 약 41년 동안 KBS, MBC, TBC, SBS에서 정규 편성되어 방영된 전체 역사드라마로 총 157편이다. 역사드라마 목록은 이병훈(1996)이 정리한 ‘TV 사극 편람’, 김승현·한진만(2001)

의 텔레비전 드라마 목록, 1996년 이후에 방영된 역사드라마는 신문편성표를 통해서 찾았다. 이병훈이 정리한 역사드라마 목록에는 시대배경, 제작자,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병훈은 모호한 시대를 배경으로 일일 드라마 형식의 멜로드라마도 역사드라마에 포함시켰지만, 이 연구는 제외했다.

정규 편성된 역사드라마를 분석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특집극(설날 특집극, 3·1절 특집극, 8·15 특집극 등) 등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베스트셀러 극장>, <TV문학관>, <드라마 시티>등에서 방영된 단막극 형식의 역사드라마도 분석에서 제외했다. 분석대상이 된 역사드라마는 KBS⁸⁾ 60편, KBS2 18편, TBC 22편, MBC 49편, SBS 8편이다. 역사드라마 코딩은 시작연도에 따랐다.

2) 분석유목

분석유목으로 역사드라마 하위 장르, 형식, 시대구분, 편성길이 등으로 분류했다. 역사드라마 하위장르는 2절에서 구분한 분류법에 따라서 기록적, 개연적, 상상적, 전형적, 허구적 역사드라마로 구분했다. 형식 분류는 일일드라마, 주중·주말연속극(주 2회), 주간연속극(주 1회), 주간연속단막극으로 구분했다. 주중·주말연속극과 주간연속극을 분리한 이유는 1970년대 중반 이전의 경우 역사드라마는 일일연속극이나 주 1회 방영되었으나, 1980년대 중반 이후 주중과 주말에 걸쳐서 주 2회 방영되었기 때문이다. 주간연속단막극은 매회 다른 에피소드를 방영하는 역사드라마로 예를 들어, <전설의 고향>(KBS, 1977~1989), <명인백선>(KBS, 1972), <민족풍속도>(MBC, 1981) 등이다. 방송사별 분석대상 역사드라마의 형식은 <표 2>와 같다.

8) KBS는 1964~1980년까지와 그 이후 KBS1을 포함한다.

<표 2>방송사별 역사드라마 형식

	KBS	KBS2	TBC	MBC	SBS	계
일일연속극	12	1	11	19		43
주중주말연속극	13	14		24	8	59
주간연속극(주1회)	30	1	11	4		46
주간연속단막극	5	2		2		9
계	60	18	22	49	8	157

시대구분은 상고 시대, 삼국 시대, 고려 시대, 조선 전기, 조선 중기, 조선 후기, 일제강점기, 불명확한 조선 시대, 기타(시대의 혼합인 경우)로 구분했다. 전체 157개 역사드라마 중에서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것이 115개나 되기 때문에 조선시대는 세분화해서 구분했다. 이밖에도 인물의 신분은 왕과 귀족, 양반 지배층, 평민·중인, 천민, 기타(모호)로 구분했으며, 편성길이는 방영개월 수로 계산했다.

4. 역사드라마의 장르사적 구분

장르사는 “장르의 구문론과 의미론적 요소를 통해서 그들 사이의 변화와 상호작용의 패턴을 추적하는 것”이다. 그러나 텍스트 특성과 더불어 고려해야 할 것은 제작과 관련된 내적 외적 요인이다. 역사드라마 장르사적 구분을 위해서 구문론(형식)과 의미론(내용)의 변화와 더불어 방송의 맥락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역사드라마 형식의 변화과정을 보면, 역사드라마가 처음 방영된 1964년부터 1969년까지 방영된 21편은 모두 주간연속극(주 1회) 형식을 취하고

9) Altman, R. Cinema and genre, In G. Nowell-Smith(Ed.), *The Oxford History of World Cinema*,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p.284.

있다. 일일연속극으로 역사드라마가 제작된 것은 1970년 MBC <御命>(표재순 연출·김동현 극본)(1970.8.11~1970.10.24)이 방영되면서부터이다. 방송 3사가 일일드라마 형식의 역사드라마를 고정적으로 방영한 해는 1972년으로 7편을 제작했다. 1971년 <장희빈>(MBC)이 성공을 거두면서 다음 해부터 일일연속극 역사드라마가 확대되었다.¹⁰⁾

1973년 문화공보부는 방송의 공공성, 교양성, 윤리성을 규제한 방송법의 실천을 촉구하면서 일일연속극 축소를 강제했다. 전체 일일연속극은 축소되었지만, 일일연속극 형식의 역사드라마는 거의 감소하지 않았다(1972년 7편, 1973년 5편, 1974년 6편, 1975년 2편, 1976년 6편).

1981년 MBC 여인열전 제1화 <장희빈>¹¹⁾이 월요일과 화요일에 편성되면서 주중·주말연속극이 등장했다. 그해 주간단막극 형식과 1982년 일일연속극 형식의 역사드라마는 사라졌다. 1994년 이후에는 주중·주말연속극 형식의 역사드라마만이 방영되는데 월화드라마, 수목드라마, 주말드라마로 불리면서 일주일에 2회씩 편성되고 있다. MBC는 월화사극을 1983년부터 목요일과 금요일로 옮겨 <조선왕조 500년>시리즈를 1990년 제11화 <대원군>까지 7년 9개월 동안 편성했다. 1990년부터 1994년까지 역사드라마의 제작편수는 매년 2~3편에 불과할 정도로 일시적인 침체를 맞이했다. 이 시기에 트렌디 드라마의 제작 붐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역사드라마의 내용적 측면에서 보면, <국토만리>(KBS), <마의태자>(KBS) 등 1964년~1966년 사이에 전설과 설화를 다룬 허구적 역사드라마

10) 1970년대는 일일연속극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방송사가 방영한 전체 일일연속극의 평균편수는 각각 5.3편(1970), 7.3편(1971), 9.6편(1972), 6.3편(1973), 6편(1974), 5.6편(1975), 7편(1976) 등이었다(김승현·한진만, 2001, 63~64면 재분석).

11) <장희빈>이라는 제목의 역사드라마는 지금까지 네 번 제작되었다. MBC 일일연속극 <장희빈>(1971.7.19~1972.1.29)(유홍렬 연출·이서구 극본), MBC 여인열전 제1화 <장희빈>(1981.10.5~1982.4.30)(유길촌 연출·임충 극본), SBS 대하사극 <장희빈>(1995.2.20~1995.9.26)(이종수 연출·임충 극본), KBS2 특별기획드라마 <장희빈>(2002.11.6~2003.10.23)(이영국·한철경 연출, 김선영·강태완 극본).

로부터 시작했다가 1966년부터 <수양대군>(KBS), <세조대왕>(KBS), 대원군(TBC), <이성계>(TBC), <김옥균>(TBC) 등 극적 요소가 강한 인물중심의 드라마가 제작되었다. 이와 같은 역사드라마들은 정사 중심의 기록적 서술형식을 취했다. 1971년 전형적 역사드라마로 <개화백경>이 주간단막극 형식으로 시작되었는데, 당시 왕조사나 상류층이 등장하는 방식과 다르게 서민들의 풍물을 다룬 새로운 내용이었다.

그러나 역사드라마 내용의 변화는 1972년 10월 유신 이후에 나타났다. 10월유신 이후 방송사의 자율적 조치로 프로그램의 주제 설정에 있어 국민정신이나 미풍양속, 사회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는 것, 퇴폐적이고 비관적인 것, 부도덕한 내용을 담은 것을 피하도록 하는 포괄적 지침과 더불어 세부지침으로 드라마 부문에서 삼각관계, 불륜 가정파탄의 소재를 피할 것, 역사드라마에서 흥미분위의 작품을 지양하고 역사적 사실의 왜곡이나 탄식, 비애, 체념 등을 담지 말 것, 현대극은 중류 이상의 가정을 배경으로 삼는 것을 피하고 방언 등을 남용하지 말 것 등을 제시했다. 따라서 역사적 위인으로 <세종대왕>(KBS), <강감찬>(KBS), <이율곡>(KBS) 등이 일일연속극으로 방영되었다.

게다가 유신체제는 1976년 ‘국민교육매체화방침’을 제시하여 저녁 7시~9시까지 사회교양 프로그램을 편성하도록 강제했는데 밤 8시대에 최소 25분 이상 국민교양을 위한 드라마 제작을 요구했다.¹²⁾ 따라서 민족사관정립극이 제작되었다. 민족사관정립극은 박정희 체제의 민족 이데올로기를 그대로 반영했다.

1981년부터 컬러 텔레비전 방송이 시작되면서 역사드라마도 변화했다. 1980년대 초반 이후 텔레비전 역사드라마에서 두 가지 특성이 나타났다. 첫째, 컬러 방송으로 프로그램의 내용과 제작기술이 변화되었는데, 과거 스튜디오에서 소규모로 제작되던 방식에서 벗어났다. 탈 스튜디오 현상

12) 조항제, 「1970년대 한국 텔레비전의 구조적 성격에 관한 연구」, 서울대 신문학과 박사학위논문, 1994, 107~109면.

으로 시원한 자연풍경을 배경으로 하는 서민 역사드라마와 화려한 궁궐을 배경으로 하는 궁중 역사드라마가 각광을 받게 되었다. 둘째, 1983년부터 KBS의 <개국>을 시작으로 정사드라마가 등장하게 되었다. MBC도 <조선왕조 500년>시리즈를 1990년까지 방영했는데 과거 인물중심의 정사드라마에서 사건과 역사적 맥락의 흐름을 짚어내는 정사 드라마의 전성시대를 이루게 된다.¹³⁾

1995년부터에서 현재까지 역사드라마는 대형화되고 대중적 인기를 끌었던 시점이다. 1990년부터 1994년 방송 4채널에서 역사드라마는 한 해 1~2편 밖에 제작되지 않았지만 1995년 5편으로 확대되었다. 이 시기에 역사드라마는 주 2회의 형식으로 고정되었다. <장녹수>(KBS2, 1995), <용의 눈물>(KBS, 1996~1998), <임궏정>(SBS, 1996~1997) 등 대형화된 역사드라마가 제작되었다. 2000년~2004년 사이 <태조왕건> 42.6%, <여인천하> 36.2%, <허준> 55.9%, <대장금> 38.8% 등이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면서 가장 인기 있는 텔레비전 드라마 장르로 떠올랐다.¹⁴⁾

이상에서 보듯이 역사드라마 시기구분에서 중요한 계기를 이루는 시점은 1973년, 1981년, 1995년이다. 1964년부터 1972년까지는 전설과 설화 등을 소재로 하거나 극적 성격이 강한 역사적 인물을 중심으로 교양과 이야기로서의 역사드라마 시기이다. 1973년은 지배 이데올로기로서 민족이념이 극명하게 제시되었다.

1981년은 컬러 방송이 도입되면서 역사드라마의 탈 스튜디오 제작이 확대되고, 역사드라마의 지배적 형식인 주중·주말연속극이 시작되었다. 1981년부터 1994년 사이 지배적 내용은 맥락중심의 기록적 역사드라마이

13) 이병훈, 앞의 논문, 48~49면.

14) 2000~2003년까지 역사드라마의 평균 시청률은 21.2%였고, 기타 드라마의 평균 시청률은 14.7%였다. 역사드라마의 평균 시청률이 전체 드라마에 비해서 6% 가량 높은 편이었다. 따라서 1990년대 후반 이후 역사드라마 장르는 시청자에게 친숙한 장르로 자리 잡았다고 할 수 있다(주창윤, 2004).

다. 이와 같은 드라마는 <풍운>(KBS)(1982)으로부터 시작되고, 1983년 <개국>(KBS), <조선왕조 500년>(MBC)시리즈로 확대되었다.

1995년은 역사드라마가 1990년부터 1994년까지 침체과정에서 벗어나 인기를 얻기 시작한 시점이다. 1995년부터 관심을 모으기 시작한 역사드라마는 <장희빈>(SBS), <장녹수>(KBS2) 등 극적 흥미요소가 높은 소재로 시청자의 관심을 끌었으며, <임궏정>(SBS), <용의 눈물>(KBS1)은 스펙터클을 강화했다.

형식과 내용의 변화를 고려할 때, 역사드라마 장르는 네 시기— i) 옛 이야기와 교양으로서 역사드라마 시기(1964~1972), ii) 민족 이데올로기 생산으로서 역사드라마 시기(1973~1980), iii) 맥락 중심의 정사 역사드라마 시기(1981~1994), iv) 대형화와 대중성 획득의 역사드라마 시기(1995~현재)—로 나눌 수 있다.¹⁵⁾

15) 이병훈(1997)은 역사드라마의 시기 구분으로 i) 초창기(1964~1968): 첫 역사드라마의 방영에서 KBS와 TBC의 제작시기, ii) 발전기(1969~1975): 방송 3사의 경쟁시기, iii) 전환기(1976~1980): 정부의 편성통제에 따른 민족사관정립극 제작시기, iv) 전성기(1981~1990): 컬러 방송의 시작과 정사드라마 경쟁시기, v) 침체기(1991~1994): 역사드라마의 퇴조와 침체시기, vi) 부흥기(1995~현재): 역사드라마에 대한 새로운 관심고조 시기로 구분한다. 이병훈은 기능적 분류법에 따라서 역사드라마의 변천과정을 설명한다. 기능적 분류법은 변천과정을 설명할 수 있지만, 장르사의 경우 기능적 구분할 경우 장르내적 변화를 찾아내기 힘들다. 예를 들어, 1981년부터 1990년까지 정사드라마의 경쟁시기를 구분하고 있지만, 초창기에도 정사드라마는 존재해왔다. 의미론적으로 초창기 정사드라마는 인물중심의 전기드라마로 역사인물에 대한 상찬과 교훈의 내용을 다루었지만, 1980년대 정사드라마는 실제사건, 시대배경 중심의 역사드라마로 바뀌었다. 따라서 인물의 행위나 서술방식에 있어서 차이를 낳고 있다. 기능적 분류법은 장르사적 형성과정을 기술하는데 적지 않은 한계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5. 역사드라마의 장르사적 변화

1) 역사드라마 형식과 하위 장르의 변화

1964년은 텔레비전 드라마 역사에서 중요한 시점이다. TBC의 등장은 텔레비전 드라마 환경에 많은 변화를 초래했다. KBS는 국영방송으로 정부정책에 부응하는 계몽 프로그램과 드라마를 방영한 반면, TBC는 상업방송으로 재미를 추구하면서 드라마의 형식과 내용을 변화시켰다. 게다가 1963년 1월부터 매월 100원의 시청료 징수가 시작되어, 1964년 150원으로 인상되고, 1965년 200원으로 인상되었다. 1963년에는 광고방송이 시작되면서 연예오락 프로그램의 비중이 늘었고, 드라마와 관련해서 단회로 끝나는 단막극보다 시청자를 지속적으로 유입할 수 있는 연속극의 비중이 높아졌다.¹⁶⁾ 시청료 징수, 광고방송, TBC의 등장 등은 텔레비전 프로그램 전반에 영향을 미쳤고, 드라마의 경우도 단막극에서 연속극으로 바뀌었다. 1964년 최초 일일연속극 <눈이 나리는데>(TBC)가 등장한 것은 이와 같은 맥락 때문이다.

최초의 역사드라마가 1964년에 시작되었다는 것은 TBC의 등장을 앞두고 시청자를 지속적으로 유입할 수 있는 장르로 역사드라마가 선택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1964년부터 1969년까지 방영된 역사드라마 21편은 모두 주 1회 주간연속극 형식을 취했다. 1964년 일일연속극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70년에 와서 일일연속극 역사드라마가 제작된 것은 상대적으로 무대, 의상, 고증 등 제작상의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1964년~1972년까지 역사드라마는 주간연속극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16) 정순일, 「폭발적 인기 얻은 일일연속극」, 『방송과 시청자』, 8월호.

<표 3> 시기별 역사드라마의 형식변화

	1964~1972	1973~1980	1981~1994	1995~현재	계
일일연속극	11 (27.5)	29 (67.4)	3 (7.3)		43 (27.4)
주중·주말연속극			26 (63.4)	33 (100.0)	59 (37.6)
주간연속극	27 (67.5)	10 (23.3)	9 (22.0)		46 (29.3)
주간연속단막극	2 (5.0)	4 (9.3)	3 (7.3)		9 (5.7)
계	40 (100.0)	43 (100.0)	41 (100.0)	33 (100.0)	157 (100.0)

1973년~1980년 사이에는 주간연속극의 비율이 급속히 줄어들고, 일일연속극이 증가했다. 일일연속극의 증가는 1970년 1편, 1971년 3편, 1972년 7편, 1973년 5편으로 대체로 1971년 이후다.¹⁷⁾ 일일연속극이 증가하자 주간연속극은 줄어들었다. 1981년~1994년까지 역사드라마는 주중·주말연속극 중심으로 재편된다. 일주일에 2회씩 방영하는 주중주말연속극은 1981년 <장희빈>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되면서 1995년 이후에는 일일연속극, 주간연속극, 주간연속단막극 등은 모두 사라지게 되고, 주중·주말연속극 형식으로 방영되고 있다.

역사드라마 하위 장르의 변화를 보면, 1964년~1972년까지 허구적 서술의 역사드라마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표 4> 참고). <국토만리>(1964), <마의태자>(1964) 등 전설을 배경으로 하거나 <성춘향>(1967), <춘향전>(1971), <심청전>(1971), <양반전>(1972), <홍부전>(1972), <이춘풍전>(1972), <허생전>(1972) 등 KBS는 고전시리즈를 1971~1972년까지 방영하면서 고전소설을 드라마로 제작했다. 동시에 1966년 <수양대

17) 전체 일일드라마 편성비율과 관련해서 1970년 36.9%에서 1975년 75.2%, 1981년 54.2%였다(최선열·유세경, 1999). 또 다른 분석에서 1969년부터 1980년까지 전체 방영된 드라마 중에서 일일연속극의 비율은 1969~1972 29.7%, 1973~1975 54.1%, 1976~1980 50.2%였다(표재순, 1995). 두 연구 사이 일일드라마 편성비율에서 약간의 차이가 발생하지만, 대체적으로 1970년 초중반은 일일연속극 전성시대라고 말할 수 있다.

군>과 <大院君>을 시작으로 인물중심의 기록적 역사드라마도 본격화되었다. <김옥균>, <이성계>, <세조대왕> 등 극적 요소가 강한 인물들을 다루었다. 이 시기는 고전, 전설로서 옛 이야기를 다루는 역사드라마에서 극적인물을 다루는 역사드라마로 특징지어진다.

<표 4> 시기별 역사드라마의 하위 장르의 변화

	1964~1972	1973~1980	1981~1994	1995~2005	계
기록적 서술	10 (25.0)	11 (25.6)	15 (36.6)	1 (3.0)	37 (23.6)
개연적 서술	11 (27.5)	17 (39.5)	11 (26.8)	14 (42.4)	53 (33.8)
상상적 서술	1 (2.5)	8 (18.6)	4 (9.8)	10 (30.3)	23 (14.6)
전형적 서술	4 (10.0)	1 (2.3)	9 (22.0)	7 (21.2)	21 (13.4)
허구적 서술	14 (35.0)	6 (14.0)	2 (4.9)	1 (3.0)	23 (14.6)
전체	40 (100.0)	43 (100.0)	41 (100.0)	33 (100.0)	157 (100.0)

1973년~1980년의 경우 개연적 역사드라마가 가장 많이 제작되었다. 민족사관정립극은 국난극복이라는 민족 이데올로기를 표현하고 있지만, 중요한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개연적 역사드라마로 분류된다. 대표적인 드라마들로 <황희 정승>(1976), 고려말을 위기 상황으로 전제하고 그것을 극복한 인물로 이성계와 이방원을 다룬 <王道>(1976), 고산자 김정호를 다룬 <대동별곡>(1977), 고려말 중국에서 화약 제조법을 들여온 최무선의 일대기를 다룬 <예성강>(1976), <거상 임상옥>(1976), 조선 조 효종 때 북벌계획을 추진한 훈련대장 이완을 극화한 <사미인곡>(1976), 대원군 때 신 병기제조를 중심으로 외세침략에 저항하는 선각자들의 이야기를 다룬 <햇불>(1976), 임진왜란 당시 피랍 도공의 한을 극화한 <타국>(1977) 등이 있다. 이 시기는 땅굴사건,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월남패망, 육영수 저격사건 등으로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일본과 갈등이 깊어지면서 정권이 지배 이데올로기로서 민족을 강하게

제시했던 것과 맞물려 있다.

1981년~1994년까지 맥락중심의 기록적 역사드라마가 부상하게 되었다. 이 시기에 주목할 만한 것은 과거 인물중심의 기록적 역사드라마에서 역사적 상황과 맥락을 강조하는 기록적 역사드라마로 전환이다. 1983년 <개국>, <조선왕조 500년>시리즈(1983~1990)가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기록적 정사 드라마는 거의 사라지고 중요한 역사적 사건을 다루지만, 작가의 역사적 해석과 상상력이 보다 많이 가미된 개연적 역사드라마로 바뀌었다. 이와 같은 드라마는 주로 KBS를 중심으로 편성되는데 <용의 눈물>(1996~1998), <바람의 생애>(1998), <소설 목민심서>(2000), <태조왕건>(2001~2002), <명성황후>(2001~2002), <제국의 아침>(2002~2003), <무인시대>(2003~2004)로 이어졌다. 동시에 MBC를 중심으로 역사적 인물을 설정하지만 멜로드라마의 이야기 구조를 바탕으로 재미와 스펙터클의 요소를 확대시키는 <허준>, <대장금>, <상도> <여인천하> 등 상상적 역사드라마도 급부상했다.

2) 방송사별 역사드라마 장르의 특성

역사드라마 장르의 제작변화를 살펴보면, 방송사별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표 5>참고). KBS1은 기록적, 개연적 역사드라마를 중심으로 제작해 왔다. 물론 1960년대 중반 고전시리즈로 허구적 역사드라마도 만들기는 했지만 1977년 시작한 <전설의 고향> 이후 제작하지 않고 있다. KBS의 초기 역사드라마는 영웅적 모습과 극성(劇性)이 높은 등장인물을 중심으로 기록적 역사드라마와 정부의 정책극으로 제작된 개연적 역사드라마들을 제작하다가 1980년대 들어와서 변화를 보였다. 1982년 KBS1의 대하드라마 <풍운>은 맥락중심의 기록적 역사드라마의 전형을 보여준다. 구한말 외세의 침략과 대원군의 개혁정책을 극화한 <풍운>은 흥미성과 역사드라마의 교육적 기능 측면에서 호응을 받았다. 1983년 <개국>,¹⁸⁾ <독

립문> 등은 역사기록에 의존하면서 특정 인물 중심이기보다 정치사회적 맥락을 중심으로 기술되었다.

KBS는 1980년대 전형적 역사드라마의 제작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전형적 역사드라마는 시대의식을 보여주는 인물을 통해서 다양한 시대의 존재조건을 다루는 것으로 역사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시대의식을 갖고 있는 일상적 인물들을 중심으로 그려진다. 이와 같은 역사드라마는 1980년대 KBS1과 KBS2를 중심으로 방영되었다. 대표적인 드라마들로 조선말 최침관택의 서회를 중심으로 시대상황과 함께 그려낸 박경리 원작의 <토지>(KBS, 1979; 1988), 조선조 말 보부상들의 애환과 사랑을 그린 김주영 원작의 <객주>(KBS, 1983), 구한말부터 해방에 이르는 격동기에 양반가와 천민들의 관계를 그린 한무숙 원작의 <역사는 흐른다>(KBS, 1989), 구한말부터 3·1운동 직전까지 시대배경으로 민초들의 삶을 그려낸 홍성원 원작의 <먼동>(KBS, 1993) 등이다.

전형적 역사드라마는 대체로 조선말부터 해방 전까지의 역사를 그리고 있다. 이들 역사드라마는 기록적 역사드라마와 상동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보인다.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MBC가 기록적 역사드라마를 집중적으로 제작했다면, KBS는 근현대사의 총체적인 모습을 그려내는 역사소설을 원작으로 역사적 진실의 문제를 다루었다.

KBS는 1990년대 중반 <김구>(1995) 이후에는 기록적 역사드라마를 제작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중요한 역사적 인물과 사건을 배경으로 하면서 작가가 부족한 공백을 채워나가는 개연적 역사드라마를 제작했다. 이

18) 정영희(2005)는 <개국>을 정부의 정책드라마라고 평가한다. 공민왕, 신돈, 노국공주 등 고려말기 부패와 혼란상을 표현하면서 최영, 정몽주와 이성계의 상충된 보수와 혁신을 비교함으로써 이성계의 정치사상, 혁명과 새로운 왕조건설을 다룸으로써 당시 쿠데타에 의한 정권획득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해석은 충분한 개연성이 있지만, 1970년대 목적극으로부터 역사와 맥락을 중심으로 역사드라마의 변화과정 속에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싶다.

들 드라마들은 공통적으로 강한 민족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태조왕건>, <제국의 아침>, <무인시대>, <불멸의 이순신> 등을 통해서 남성영웅을 중심으로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와 ‘민족’ 또는 ‘제국’의 이데올로기를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민족사관정립극에서 보여주는 ‘민족’ 이데올로기와 유사하지만, 정치권력의 지배유지를 위한 위로부터 강요된 이데올로기가 아니라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 KBS는 공영방송에서 역사드라마의 역할을 민족 정체성의 확대에 간주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5> 방송사별 역사드라마의 하위 장르의 변화

방송사	서술방식	1964~1972	1973~1980	1981~1994	1995~현재	계
KBS	기록	5	5	3	1	14
	개연	7	8	2	8	25
	상상					
	전형	2	1	5		8
	허구	8	4	1		13
	소계	22	18	11	9	60
KBS2	기록			1		1
	개연			5	5	10
	상상			1	1	2
	전형			3	1	4
	허구				1	1
	소계			10	8	18
TBC	기록	3				3
	개연	3	3			6
	상상	1	7			8
	전형					
	허구	5				5
	소계	12	10			22
MBC	기록	2	6	11		19

	개연	1	6	4		11
	상상		1	3	7	11
	전형	2		1	1	4
	허구	1	2	1		4
	소계	6	15	20	8	49
SBS	기록					
	개연				1	1
	상상				2	2
	전형				5	5
	허구					
	소계				8	8

TBC는 1960년대에는 허구적 역사드라마와 기록적 역사드라마를 중심으로 제작했다가 1970년대 상상적 역사드라마를 중심으로 변화되었다. 1960년대의 경우, KBS와 유사한 특성을 보인다. TBC는 <성춘향>, <양반전>과 같은 허구적 역사드라마와 럭키극장에서 <대원군>, <이성계>, <김옥균> 등과 같은 기록적 역사드라마를 1960년대 제작했다. 1970년대 상상적 역사드라마들이 제작되었는데 주로 <조선여인사 500년>(1972~1979)을 통해서 방영되었다. 이것들은 조선시대 역사적 인물을 바탕으로 그려낸 멜로드라마 구도의 역사드라마였다. 예를 들어, 구한말 선혜옹주의 고초를 그린 <蓮花>(1973~1974), 조선조 중종 때 부마 윤지경의 사랑 이야기를 다룬 <윤지경>(1974), 철종의 강화도령 시절 애환과 임금이 된 후 사랑을 그린 <임금님의 첫 사랑> 등이다.¹⁹⁾

19) TBC는 1960년대 모호한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멜로드라마 <민머느리>, <갯이>, <한양낭군>, <수청기생> 등을 많이 제작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이들 드라마는 역사드라마의 범주에서 제외했다. TBC의 상상적 역사드라마는 이와 같은 멜로드라마의 연상선상에서 제작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상상적 역사드라마가 특정 역사적 인물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면, 위의 드라마들은 배경만 조선시대일 뿐이며 역사적 인물이 등장하지 않는다.

MBC는 KBS와 마찬가지로 1970년대 정부의 지침에 따른 목적극으로 기록적, 개연적 역사드라마 장르를 제작했다. MBC 역사드라마의 큰 변화는 1983년 <조선왕조 500년 시리즈>(1983~1990)를 방영하면서부터이다. 이들 드라마들은 왕조실록이나 승정원일기 등 공인된 기록이나 역사학자들의 논문 등을 토대로 어느 정도 역사적 고증을 통해서 만들어진 드라마이다. MBC의 <조선왕조 500년>시리즈는 <추동궁 마마>, <뿌리깊은 나무>, <雪中梅>, <風蘭>, <壬辰倭亂>, <回天門>, <南漢山城>, <仁顯王后>, <閑中錄>, <破門>, <大院君>에 이르기까지 8년 동안 방영되었다. MBC는 1995년 이후 상상적 역사드라마를 중심으로 제작하고 있는데, <허준>, <대장금>, <상도>등이 대표적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 MBC 역사드라마들은 젊은 세대에게 호소력 있는 역사드라마를 위해서 트렌디 드라마 형식의 도입, 사료 중심에서 탈피, 교훈과 재미의 추구, 미술부문에서 오픈 세트, 의상, 미용, 분장, 섬세한 처리 등으로 기존 역사드라마와 구분되었다.²⁰⁾ MBC는 민족공동체에 초점을 맞추는 KBS 역사드라마와는 다르게, 새로운 형식의 재미있는 역사드라마를 추구하고 있다.

3) 역사드라마 표현방식의 변화

역사드라마는 인물중심적 표현에서 맥락중심적 표현으로 변화되어왔다. 분석대상 중에서 기록적, 개연적 역사드라마가 어떻게 인물과 맥락 중심으로 표현했는가를 시기별로 보면 <표 6>과 같다.²¹⁾

20) 이병훈, 『드라마 <허준> 제작일지. 『드라마 <허준>을 다시 읽는다』, 한국방송비평회 프로그램 평가토론회, 2000.

21) 분석대상에서 상상적, 전형적, 허구적 역사드라마는 인물과 맥락 중심 분석에서 제외했다. 왜냐하면 상상적 역사드라마는 인물중심적인 경향이 있지만, 그 인물이 역사적 과정 속에서 표현되기보다 멜로드라마 구도에서 그려지기 때문이고, 전형적, 허구적 역사드라마에서 인물은 가상인물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표 6> 인물과 맥락 중심적 역사드라마의 변화

	1964~1972	1973~1980	1981~1994	1995~현재	계
인물중심	17 (81.0)	12 (42.9)	6 (23.1)	5 (33.3)	40 (44.4)
맥락중심	4 (19.0)	16 (57.1)	20 (76.9)	10 (66.7)	50 (55.6)
계	21 (100.0)	28 (100.0)	26 (100.0)	15 (100.0)	90 (100.0)

1960년대 역사드라마의 평균길이는 3.45개월이었는데 주 1회 방영을 했기 때문에 평균 15회 내외에 불과했다. 제한된 길이, 좁은 스튜디오의 제작환경, 영웅에 대한 옛 이야기 들려주기 등을 고려하면 초기 역사드라마는 인물중심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물중심적 역사드라마는 정치적 맥락중심적 역사드라마로 변화되었다. 특히 1980년대 역사적 맥락을 재해석하면서 등장하는 편성길이는 급속히 증가했다. 1983년~1994년 사이 역사드라마의 평균 방영길이는 6.71개월이었는데, 주 2회씩 편성했으므로 대략 50회 정도 방영되었다. 단순히 방영길이만 역사드라마가 인물중심에서 맥락중심으로 변화시켰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맥락중심의 전개가 이야기의 길이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역사드라마의 변화는 스펙터클의 강화에서도 나타났다. 역사드라마에서 역사적 공간의 재현을 통한 스펙터클은 이야기 전개와 연출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우선 영상의 화려함과 장엄함을 만들어내는 데 기여한다. 이것은 시청자로 하여금 드라마의 이야기 구조 안으로 몰입시키는 효과를 낳는다. 동시에 역사공간의 재현을 통한 스펙터클은 이야기의 전개과정에서 작가의 개연성과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게 만들었다.

초기 역사드라마에서 스펙터클과 역사적 공간의 재현은 여러 가지 제작상의 이유로 어려웠다. 이병훈(1995)은 초기 역사드라마가 스튜디오의 협소함으로 무대장치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고, 카메라와 녹화장비의 신속한 이동이 어려웠으며, 가발, 의상, 장신구, 세트 등을 준비하는데 많

은 비용이 소요되어서 제작자체가 한계가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 1973년 한국민속촌이 개장하고, 1976년 KBS가 여의도 방송센터로 이주하면서 스튜디오 제작이지만 역사공간을 과거보다 더 재현할 수 있게 되었다. 게다가 1981년 컬러 텔레비전의 등장 이후 탈 스튜디오 제작이 확대되었다. 이 시기 역사드라마는 한국민속촌과 고궁을 중심으로 역사드라마를 제작함으로써 일반서민이나 양반 등의 모습은 한국민속촌에서 궁궐 외부는 고궁에서 촬영했다. 이밖에도 1985년 <조선왕조 500년> <임진왜란>에서는 대규모 전쟁장면과 해전의 미니어처 특수촬영으로 볼거리를 제공하기도 했다. 그러나 1980년대 역사드라마의 스펙터클은 제한된 영역에서 이루어졌다.

1990년대 중후반 이후 역사드라마는 새로운 스펙터클을 제공하면서 대중성을 높여나가고 미학적 변화를 이끌었다.²²⁾ 이 시기 역사드라마는 역사공간의 재현을 통해서 시청자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했다. 이것은 과거 역사드라마의 주요 무대였던 민속촌이나 궁궐에서 벗어나서 실제 공간에 옮겨 놓은 대규모 야외 세트 때문에 가능했다. 예를 들어, <태조왕건>은 문경, 제천, 안동 세 곳에 주인공인 왕건, 궁예, 견훤의 활동무대인 송학, 철원, 완산주 시대의 황궁을 재현했고,²³⁾ <허준>은 허준이 유의태의 제자로서 의술을 익혔던 산음 마을을 의정부 세트장에 마련했다. 1990년대 역사드라마의 스펙터클은 역사공간의 재현뿐만 아니라, 생활사나 의상고증을 통해서도 제공했다. <대장금>은 궁중요리나 궁중 여인네들의 생활사나 궁중요리를, <명성황후>는 조선 후기 궁중의상과 궁중생활

22) 원용진·주혜정, 「텔레비전 장르의 중첩적 공진화(dual co-evolution): 사극 <허준>과 <태조왕건>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통권 16-1, 300~332쪽; 황인성, 「드라마 <허준>의 장르적 특징과 대중성에 관하여」, 한국방송비평회 펴냄, 『방송비평의 실제』, 한울, 2001.

23) <태조왕건>은 문경, 안동, 제천에 오픈 세트를 설치했다. 총 제작비 500억 원이 투자되었고, 지방자치단체가 관광유치목적으로 투자한 오픈 세트제작 비용만 56억 3천만 원이었다.

사를 통해서 사실성과 극적 상상력을 높였다. 이밖에도 1990년대 중반 이후 역사드라마들은 과거 성공, 당쟁, 권력 문제 등 하나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다루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다층적 이야기 구조를 만들어냈다. <허준>, <상도>, <대장금> 등은 단일한 이야기 구성이 아니라, 성공신화와 더불어 삼각관계 구도를 첨가함으로써 멜로드라마의 구도를 함께 포함시켰다. 이와 같은 이야기 전개방식은 과거 역사드라마의 이야기 전개방식과는 구별되는 것이었다. 물론 1990년대 역사드라마가 모든 다층적 이야기 구도를 활용하는 것은 아니다. 대체로 상상적 역사드라마에서 다층적 이야기 구조가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역사드라마는 역사적 공간 재현, 스펙터클의 강화, 이야기의 다층적 구조, 작가적 상상력을 통한 극적 재미 등을 통해서 대중성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6. 결론

이 글은 1964년부터 2005년까지 한국 역사드라마 장르가 어떻게 변화되어왔는가를 살펴보았다. 초기 역사드라마는 옛 이야기로서 시청자에게 다가갔다. 설화나 고전소설의 드라마 제작, 그리고 세조, 대원군, 김옥균과 같은 파란만장한 역사적 인물들을 다루었다. 1970년대 초반 이후에는 유신정권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맞추어서 국난극복과 민족 이데올로기를 그려내는 데 적합한 '이상적' 인물을 그려냈다. 1980년대에는 정사를 바탕으로 역사적 맥락을 재해석하는 기록적, 개연적 역사드라마가 부상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역사드라마는 멜로드라마, 코미디, 트렌디 드라마 등의 장르를 혼합하고, 한국민속촌 중심에서 벗어나서 자체 대형 세트를 설립하면서 스펙터클의 영상화에 성공하고, 편집, 음악, 의상 고증 등을 통해서 새로운 형식의 변화를 추구하게 되었다. 이야기 자체는 역

사적 사실에서 벗어나서 작가의 상상력이 지배하는 상상적 역사드라마가 대중적 인기를 끌게 되었다.

역사드라마의 장르사를 살펴보면 몇 가지 함의를 생각할 수 있다. 첫째, 역사드라마는 다른 드라마 형식과 다르게 정치적 맥락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1970년대와 1980년대 초반 역사드라마는 정치적으로 활용되었다. 1970년대 중반 민족사관정립극이나 1980년대 초반 MBC의 한국인 재발견시리즈 등은 집권세력의 이데올로기를 위해서 활용되었다. 역사드라마는 다른 드라마 장르보다 정치적 장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역사드라마에서 하위 장르들이 새롭게 나타나기도 했지만, 개연적 역사드라마의 경우 시대와 관계없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것은 역사드라마가 중요한 역사적 사건과 인물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허구적 역사드라마, 기록적 역사드라마, 전형적 역사드라마, 상상적 역사드라마는 시대에 따라서 급부상하거나 쇠퇴하기도 했다.

셋째, 방송사는 역사드라마를 드라마 편성에서 전략적으로 활용해왔다. 1964년 KBS가 TBC의 개국을 앞두고 처음 역사드라마를 시작하고, MBC가 개국 이후 처음으로 역사드라마를 일일드라마 형식으로 제작했으며, TBC도 초창기 멜로드라마와 역사드라마를 전략 장르로 설정했다. 1980년대 이후 현재까지 상대 방송사가 새로운 형식을 개발하거나 투자를 확대하면 곧바로 유사한 패턴으로 따라가는 경향도 지배적이다.

이 글은 지난 41년 동안 역사드라마의 장르사적 발전을 포괄적으로 살펴본 것이기 때문에 적지 않은 한계를 지닌다. 연구자가 모든 역사드라마를 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서 전반적인 흐름만을 추적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역사드라마 내에서 나타나는 표현방식에 변화, 인물묘사 방식, 이야기 구성방식 등도 제대로 살펴볼 수 없었다. 이와 같은 부분들은 각각의 시기마다 주요 역사드라마를 보면서 탐구해야 할 영역일 것이다.

참고문헌

1. 단행본

공임순, 『우리 역사소설은 이론과 논쟁이 필요하다』, 서울: 책세상, 2000.
 김승현·한진만, 『한국 사회와 텔레비전 드라마』,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1.
 김윤식, 『한국근대 소설사 연구』, 서울: 을유문화사, 1986.
 오명환, 『텔레비전 드라마 사회학』, 서울: 나남출판, 1994.
 이재선, 『한국현대소설사』, 서울: 민음사, 1999.
 정영희, 『한국사회의 변화와 텔레비전 드라마』, 서울: 커뮤니케이션북, 2005.
 Grindon, L., *Shadows on the past: Studies in the Historical Film*, Oxford and New York: Temple University Press, 1994.
 Higson, A., *English Heritage Cinema: Costume Drama Since 1980*, Oxford an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Neale, S., *Genre*, London: British Film Institute, 1980.
 Rosenstone, R. A., *Visions of the Past: Challenge of Film to our Idea of History*, Cambridge, Massachusetts and London: Harvard University Press, 1995.
 Rosenstone, R. A., *Revisioning History*. 김지혜 옮김, 『영화, 역사-영화 새로운 과거의 만남』, 서울: 소나무, 2002.

2. 논문

신봉승, 「역사와 역사극의 인식」, 『방송연구』, 봄호, 1984, 166~174면.
 원용진·주혜정, 「텔레비전 장르의 중첩적 공진화(dual co-evolution): 사극 <허준> 과 <태조왕건>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통권 16-1, 2002, 300~332면.
 이동후, 「드라마 <대장금>의 사회적 파급효과」, MBC PD협회 정기세미나, 『MBC 특별기획드라마 대장금 그 성과와 사회문화적 함의』, 2004년 3월 2일.
 이병훈, TV 史劇의 변천과 특성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이병훈, 「드라마 <허준>제작일지」. 한국 방송비평회 프로그램 비평토론회, 『드라마 <허준>을 다시 읽는다』, 2004.
 정순일, 「폭발적 인기열은 일일연속극」, 『방송과 시청자』, 1999, 8월호.
 조항제, 「1970년대 한국 텔레비전의 구조적 성격에 관한 연구: 국가정책과 텔레비

- 전 자본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4.
- 주창윤, 「역사드라마의 역사서술방식과 장르형성」, 『韓國言論學報』 48권 1호, 2004, 166~188면.
- 최선열·유세경, 「텔레비전 드라마의 역사성 연구:정치적, 경제적 변화요인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제13호 1999, 7~46면.
- 표재순, 「한국 텔레비전 드라마 편성의 역사적 변화에 대한 소고」, 『방송시대』 7호, 1995, 100~113면.
- 황인성, 「드라마 <허준>의 장르론적 특징과 대중성에 대하여」, 한국방송비평회 펴냄, 『방송비평의 실제』, 서울: 한울, 2001.

Abstract

Generic History of Historical Dramas in Korea: 1964~2005

Joo, Chang-yun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dentify the generic history in which historical dramas have developed in Korea from 1964 to the present. Historical drama is redefined by five sub-genres—history-based, historical probability, imaginative, typical, melodramatic. According to the forms and content, the period of historical drama is divided as 1964~1972, 1973~1980, 1981~1994, and 1995~2005.

It is the early historical drama that dramatized classic novel, legend, and melodramatic characterization. It is assumed that the audience considers watching historical dramas as listening old stories. From 1973 to 1980, the historical drama genre was dominated by a melodramatic and a historical probability genre. While the melodramatic historical drama, as the daily drama, dealt with the sadness of ancient women, a historical probability drama represented nationalism as a dominant ideology. History-based drama was emergent in the mid 1980s, focusing on historical backgrounds and power relationship beyond character-oriented styles.

New historical drama, called imaginative drama, has been popular since the mid 1990s. It attempts to depict individual human beings in their mental complexity and spiritual depth, depending on author's historical imagination, rather than historical documents. In addition, it makes new stylistics of historical drama which has blended a wide range of conventions and aesthetics from trendy drama, melodrama and comedy.

Key Words: television drama, historical drama, generic history, imaginative historical drama.

접 수 일 : 2007년 2월 26일

심사기간 : 2007년 3월 1일~17일

게재결정 : 2007년 3월 17일